

물 오염, 수인성 전염병 기승

국립보건원은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세균성 이질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수인성(水因性) 전염병이 대부분 오염된 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국 약수터와 지하수, 상수도 등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와 소독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각 시·도와 보건소에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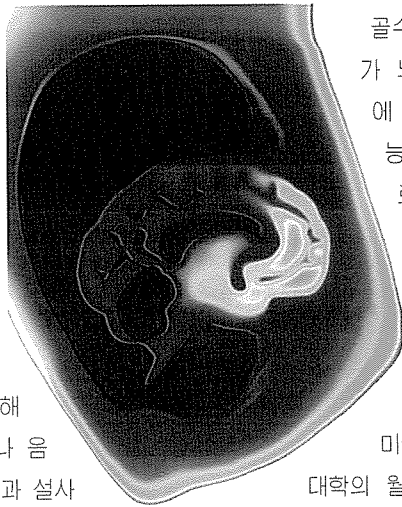
세균성 이질은 작년 79명에서 올 1~3월 현재 346명, 장티푸스는 50명에서 67명, 파라티푸스는 35명에서 145명으로 늘어났다. 세균성 이질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은 뒤 발생하며 설사·복통·혈액이 섞인 대변이 주된 증상이다. 장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의해 걸리며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은 뒤 고열과 설사를 일으키는 급성질환으로 치사율은 1% 미만이다. 파라티푸스는 장티푸스와 원인·증상은 비슷하지만 치사율은 그보다 낮다.

보건원은 이와 관련, 파라티푸스 환자 100여명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부산 금정산 일대는 간이 상

수도 및 약수터 등 대부분이 대장균으로 오염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건원 이종구(李鍾求) 방역과장은 "특히 갈수가 끝나고 비가 온 직후일수록 급수시설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며 "약수물이나 지하수를 가급적 마시지 말고 반드시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2002. 3.18)

골수 줄기세포로 뇌중풍 치료한다



골수 줄기세포가 뇌중풍 때문에 생긴 신체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에서 입증됐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월터 로 박사는 의학전문지 '실험신경학' 3월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사람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뇌중풍을 앓고 있는 쥐에 주입한 결과 뇌신경 손상 때문에 생긴 다리기능 장애가 크게 호전되었다고 밝혔다.

로 박사는 쥐의 뇌에 주입한 줄기세포가 2주도 안돼 여러 가지 중요한 뇌신경 세포로 전환했으며, 2~6주 사이에 뇌중풍에 의한 사지(四肢) 기능마비가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설명했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갖가지 특정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미성숙 세포로 배아에 가장 많이 들어있지만 골수와 같은 성인의 일부 조직에도 있다.

로 박사는 "이 실험 결과는 뇌중풍 환자 자신의 골수 줄기세포로 뇌중풍으로 생긴 뇌신경 손상을 치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곧 뇌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2.3.18)

갑작스런 현머리 '내몸의 이상신호'

20~30대가 되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머리.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현머리는 다양한 질환의 신호탄일수도 있다. 갑작스럽게 현머리가 늘어났다면 몸에 이상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머리는 모발의 색깔을 결정짓

는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긴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전체 흰머리 발생자의 90% 가량이 유전인자의 이상 때문이다. 문제는 나머지 10%.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다.

한림대 의대 춘천성심병원 피부과 이원주 교수는 “갑상선 기능항진증, 악성빈혈, 당뇨병 등의 자가면역 질환과 백색증, 원형탈모증, 대상포진 등의 염증성 질환을 앓을 때 흰 머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원인질환의 치료. 일부분에서 갑자기 흰머리가 늘어날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난 흰머리는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특히 20대 이하의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시작되는 조기백발은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 이 교수는 “머리 부분을 솔로 가볍게 두드리고 마사지를 해주며, 두피 영양활성제를 계속 바르는 것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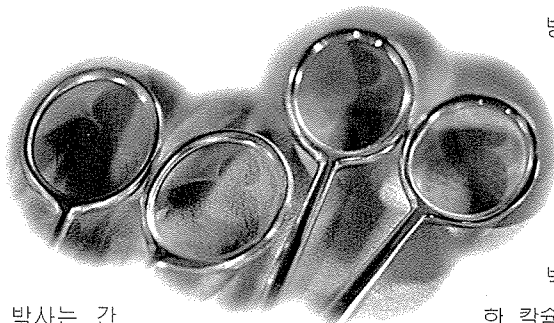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도 모세혈관 위축으로 색소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한국일보. 2002. 3.11)

칼슘, 결장암 위험 크게 감소시켜

칼슘을 적당히 섭취하면 결장암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의 우카나 박사는 국립암연구소(NCI) 회보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칼슘을 하루 700-800mg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좌측 결장암 위험이 40-50%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우 박사는 간 호사건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8만8천명의 여성(이중 626명 결장암 발생)과 보건전문요원 건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4만7천명의 남성(이중 399명 결장암 발생)을 대상으로 식사습관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우 박사는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결장암의 한가지 형태인 좌측 결장암 환자들에게만 나타나고 기타 형태의 결장암 환자들에게는 통계상으로 의미가 있는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우 박사는 결장의 좌측은 대장(大腸)의 마지막 부분이고 결장의 우측은 이 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소장(小腸)의 한 부분이라고 밝히고 이 두 가지 형태의 결장암 발생률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칼슘이 결장암에 미치는 영향이 결장의 부위에 따라 다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종양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우 박사는 밝혔다.

이에 대해 워싱턴 병원 암 센터의 중앙 영양학 전문의 마니카 크라우스 박사는 적당

한 칼슘 섭취가 뼈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 외에 또 다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평가했다.

크라우스 박사는 그러나 칼슘은 저지방 우유나 기타 낙농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식품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되 과잉복용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2. 3.20)